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전대협 출범식, 아쉬움 남겨

비판의 장 마련으로 거듭나야

전대협출범식에 참여했던 학생이다. 전야제를 포함한 모든 행사의 거대함과 열정넘 학우들이 참여했던 출범식에서의 함성과 열기에 나는 숫아오르는 흥분을 참지 못했다. 출범식장에서는 전대협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여기저기 붙고 각 집단의 주장과 비판을 담은 유인물들이 넘쳐졌다.

그러나 출범식에서 참가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외아쉬 여기는 일이 있었다. 같은 시간대에 주최측이 다른 집회가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 것이다. 소위 학생운동내의 좌파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의 집회였다. 좌파·우파가 왜 갈라섰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노선은 잘 모른다. 그러나 사회변혁운동에 가장 절실한 것이 무당이나에 나뉘대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으리라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똑같이 민중의 삶과 그녀를 느끼고 고민하는 입장이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주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전대협은 그런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경직된 태도로써 경직된 입장만을 고집하려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단결'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게 과연 백만학도의 삶을 책임진다는 구국의 강철대오의 태도여야만 할까.

지금 난 한 친구의 말을 되새겨본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대협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하는…. 이는 전대협이 대학생 자신들의 조직이고 자신이 직접 참가하는 조직이라는 근원적 의식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리라.

독재권력의 온갖 탄압과 와해속에서 꿋꿋이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결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단결은 껍데기는 문제제기와 책국적인 이견수용이 뫼받침될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다. 전대협이 결정하면 백만학우는 하나다라는 식으의 권위주의적인 하향식의 투쟁방법은 거부되어져야 한다.

물론 학우들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전대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는 깨쳐야 하고 과학적인 사고와 철저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애정이 있어야 한다.

비판문화에 익숙치않은 우리들은 비판받는 것만큼이나 비판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전대협은 우리 자신의 조직으로, 진정 내 자신의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비판이 있어야 한다. 비판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최 성 하
〈정외·1〉

준비자의 열의 무색한 공연장

개인주의가 부른 무관심 심각해

최근 한내 이곳저곳에 갖가지 행사들이 치뤄져 캠퍼스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학생들이 그동안 동아리나 과에서 각자의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한 연극이나 음악동의 발표회들로서 올 한학기를 정리하는 성격을 내보하고 있다. 그런데 시기가 그러니만큼 행사들이 남짜나 시간틈이 겹치는 경우가 생겨 급기야 장고성탈전이 벌여지는 등 그 열기가 초여름의 더위를 능가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주최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무색하리 만큼 행사장은 썰렁한 분위기로 비워있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며 그 원인 또한 여러 가지이다. 첫째는 행사가 겹치는 데 이유가 있다. 일반 학생들은 행사관람선택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더욱 곤란한 건 시간선정에 전혀 일반 학생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과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공연장에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니뭐니해도 학생들의 무관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성 준 회
〈외대 영문·2〉

고질화된 수원 교통문제

대중교통수단 유치로 해결해야

수원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다.

나는 매일아침 학교에 올때마다 정말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부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강남역 까지 한시간, 강남역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어림잡아 한시간, 게다가 아침에 학생들이 몰릴 경우에는 차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한시간이 되니, 집에서 학교까지 가느냐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씩걸리는 경우도 있는 셈이다.

학교에 가는데만 세시간이 걸리니 오는 시간까지 합하여 하루 학교에 할북하는 시간이 6시간 가까이 소비되는 셈이다.

하루가 24시간 이라쳐도 학교 오가는데 6시간이 걸리니 하루의 1/4을 길에다 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교통은 80%이상을 스쿨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하교 시간에 차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학교 당국에서는 100-2번 노선의 학교까지 연장운행 등의 일반 버스노선 유치와 전철동의 대중교통 수단을 유치함으로서 교질화된 교통문제를 차루뛰리 나가이 할것이며, 학생들도 이에 못지 않게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가지고 학교가 처한 문제를 근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애교심을 보여야할 차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모두가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 승 호
〈사회대 무역·3〉

불법적 무노동무임금 조치

조속한 해결과 민주적운영 시급

지난주 월요일 등교하는 길에 낯익은 노동조합 이재씨가 선진 쌀을 나의 손에 쥐어 주었다. 별 생각없이 그 선전물을 읽어보았는데 뜻밖의 충격을 받았다.

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7일 노동 조합은 학교측과의 단체협약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파업에 들어갔었다. 파업시작후 하루만에 학교측이 협상을 요구해 노동조합은 협상에 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로부터 2주후인 토요일 학교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노동조합은 파업기간중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봉급이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측의 무노동무임금 조치는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조치에 무척이나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단체행동에 들어가 시복을 입고 근무처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무처에 노동기요를 붙여놓고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궐해야게 하기위해 무노동무임금이란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노동무임금이란 것은 법조항에 나와 있지도 않고 한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생활보조금이 지급되어 노동자가 생활하기에 빕다든 어려움을 겪고 있지않다. 그런나 우리나라 실정은 어떠한가 그날 그날 벌어서 생활을 하는 노동자에게 압급은 생명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맑스는 임금을 "임금이란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이다"라고 규정한다. 이와같이 임금은 일을 한 양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라는 관단으로 주어진다.

노동법에는 파업기간 중 조합원들의 봉등은 파업이 끝난후 어떠한 조치도 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학교측이 조합원들에게 가한 무노동무임금의 조치는 정당본 부당한 것이다. 이처럼 하사일정이 비민주적, 불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반학생들의 노여움이 분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학교측은 무노동무임금을 속히 철회하고 학내평정에 민주적으로 임했으면 한다. 결국 이러한 것이 궁극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것임을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서 광 열
〈철학·2〉

교수동정

이영준교수 중국행

▲ 이영준(사회대교수·행정)=오는 7월13일부터 8박9일간 학술진흥재단 후원으로 중국연수.

동문모임

연남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안천대건고=오는 5일 오후5시 광도앞미담 ▲양평로고=오는 5일 오후5시30분 아카데무스 ▲울산여고=오는 3일 오후6시 경희회관 ▲장충고=오는 5일 오후5시교문앞 ▲언남고=오는 5일 오후5시30분 아카데무스 ▲사랑고=오는 3시 오후6시 불쌍다방

【수원캠퍼스】▲전주 우석·우석여고=오는 5일 오후5시30분 공대매점에서 ▲원주 진광고=오는 3일 오후5시30분 학생회관로비 ▲제주 항우회=오는 3일 오후5시30분 광대 257호 강의실 ▲광호·중앙여고=오는 4일 오후5시40분 공대식당 ▲CCC 정기모임=오늘 오후5시30분 7층동 아리방 ▲광주 시례지아고=오는 4일 오후5시 공대식당

습 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고재경(법·88) ▲이승재(법·90) ▲현광찬(정외·90) ▲홍현균(경제·92) 홍승민(경제·90) ▲분병희(경영·88) ▲강한신(무역·90) ▲신하도(회계·89) ▲최균정(미교·91) ▲남무호(의예·90) ▲조윤섭(한의예·85) ▲민경문(한의예·88)

【수원캠퍼스】◆학생증=▲윤순구(무역·91) ▲유재현(경영·91) ▲오해식(경영·90) ▲곽원우(환경·90) ▲이창준(물리·91) ▲정훈화(토목공·89) ▲최인용(원자력공·90) ▲박태현(토목공·90) ▲이진희(건축공·87) ▲권성훈(건축공·89) ▲지형두(건축공·87) ▲이규웅(전자공·90) ▲이재훈(전자공·90) 양원도(전자공·89) ▲최승준(기계공·89) ▲이성원(전산공·88)

▲김용환(산업공·90) ▲박원용(전자계산공·90) ▲차기자(도예·91) ▲조인진(임학·90) ▲이세현(체육·91) ▲김진희(체육·91) ▲김동철(태권도·90) ▲김보준(태권도·89) ◆도서대출증=▲주동웅(행정·88) ▲구형모(수학·89) ▲정만준(환경·87) ▲이세형(건축공·91) ▲정상훈(건축공·90) ▲조창범(산업공·87) ▲천병석(전자공·88) ▲전준재(전자공·90) ▲김오숙(전자계산공·90) ▲김양희(사품가공·89) ▲이승용(사품가공·87) ▲김봉식(체육·89) ▲카파검은색 손목시계 ▲갈색 여성용 손목시계

분 실

습득자 본사편집실로

【수원캠퍼스】 ▲김화중(토목·4)=밤색가방, 28일 공대시청각실에서 ▲이명훈(물리·2)=검은색 책, 28일 공대시청각실에서

등 기

등기물 송물과로

【수원캠퍼스】 ▲안창순(서반어·2) ▲하상헌(경영·3) 김재한(무역·2) ▲정성한(무역·2) ▲신성욱(물리·4) ▲추종훈(토목공·4) ▲석준용(토목공·1) ▲한신용(전자계산공·2) ▲오성일(섬유공·4) ▲김경태(섬유공·1) ▲신수일(유전공·2) ▲손인공(건축공·3) ▲최지훈(전자공·1) ▲최남일(기계공·3) ▲이승욱(식품가공·3) ▲김현성(조경·3) ▲정해원(농학·2) ▲최원(애지원·354호) ▲고영신(애지원·530호) ▲김태형(애지원·119호)

【서울캠퍼스】 ▲이명형(영분·3) ▲조진용(영분·3) ▲임수진(사학·1) ▲박인기(생물·1) ▲박수열(생물·3) ▲박지영(생물·91) ▲이경규(생물·91) ▲남동석(물리·3) ▲김현(화학·2) ▲유미숙(산방·3) ▲김재준(경제·2) ▲최미호(경제·1) ▲안미숙(영교·3) ▲오문석(미교·4) ▲저수곤(의학·3) ▲이길영(한의학·1) ▲양미영(지의·3) ▲김춘지(약학·4) ▲박길근(체육·4) 김혜정(무용·3) ▲김당원(측구부) ▲소병철(체비부) ▲현재석(삼의원 312) ▲이선미(삼의원212)

최선을 다하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 홍재연(미교·67화가) 동문을 만나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학연으로 찌든 미술계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지금 동문들이 설자리가 없었습니다."라며 홍재연(미교·67) 동문은 말문을 열었다.

지난 71년 대학을 졸업하고, 약 2개월간 고편을 접다가 미술계에 전문적으로 뛰어든 홍동문은 "한편으로 찌든 미술계에서 다른 대학 졸업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개인적인 실력이 월등하게 앞서야 됩니다. 동문선배가 없었던 초창기 미교과 졸업생들은 남다른게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며 지난날의 설움을 토로한다.

홍재연 동문은 학창시절의 추억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학중에 장발을하고 다녔는데 이 모습을 조영식 총장님이 보시고 야단을 치시드라고요. 그때는 매우 서운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야단을 치시던 총장님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라며 웃음을 띄운다.

땀흘리기 마다않는 대학생활 보내야

석관화를 근 20년동안 작품세계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크게 보급되어 있지 않아 척박하기 그지없는 석관화의 제작에 어려움을 여실한다.

그의 작품세계를 보면 70년도 중반까지 형과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대체로 우울해있지만 "죽음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희답과 더불어 삶을 지옥에 내몰을 만져할 수 있는 정계동으로 풀기는 작품의 색채가 밝아지고 있다.

홍 동문은 다른 중견 작가들과는 달리 개인전을 9번 치르고 오는 10일 청담동 갤러리 63에서 열번째 개인전을 여는 등 작품활동이 활성한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그는 3년마다 1번꼴로 개인전을 여는데 개인전은 저를 남에게 알림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을 할 때마다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점도 있고 작품활동의 나태함에 빠지지 않는다"면서 화가가 작품을 통한 자기 성찰 확인을 해야한다고 덧붙인다.

대학을 졸업한지 벌써 20여년이나 되지만 학교에 대한 애정은 식지 않고 있다는 홍 동문은 매주 이틀 학교에 출강하면서 아름다운 캠퍼스와 모든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젊은 꿈을 잡았다며 젊은 미소를 짓는다.

교편을 잡던 시절 동료 교사와 결혼하여 근 15년 결혼 생활중 슬하에 3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한 홍 동문은 "작품생활에 몰계 화일에도 아이들과 장다운 이야기 마저 할 수 없어 아이들에게 매우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멈춰하게 웃어보인다.

홍재연 동문은 대학생활을 회고하면서 "후배들이 많이들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가 선택한 전공에 열심히 노력하려면 전문화된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부디 땀을 흘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대학 생활을 보내달라"는 당부를 하며 말을 맺었다.

〈서동국 記者〉

세계로 꿈을 펴는 젊음

삼성은 매년 사원 400여명을 세계 45개국에 1년간 파견,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속에서 자유롭게 경험을 쌓은 1년 — 저 넓은 하늘만큼이나 많은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정 민호 : 오세대 금속학과 졸업 영국 파견
오 홍진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일본 파견
정 진규 : 아주대 사회학과 졸업 프랑스 파견
이 종배 : 한양대 기계학과 졸업 스페인 파견
박 병묵 : 동국대 신학과 졸업 러시아 파견
민 병주 : 성균관 경영학과 졸업 미국 파견
이 현주 :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 독일 파견
사 승민 : 단국대 경영학과 졸업 독일 파견
한 석희 : 서울대 사회사업학과 졸업 스페인 파견
조 종환 : 성균관대 무역학과 졸업 일본 파견
이 동남 : 고려대 전자공학과 졸업 독일 파견
이 건희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일본 파견

삼성은 인재의 국제화를 위해 매년 3년차 사원의 10%, 400여명을 세계45개국에 1년간 파견하고있습니다.

삼성은 인재의 국제화를 공허한 구호가 아닌 직접적인 사원파견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사원이 아닌 일반사원을 파견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젊음의 패기를 통해 더 넓은 안목으로 세계를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이 창업이래 일관되게 지켜온 '인재제일'의 기업이념 ——
이제 국경을 넘어 전세계를 무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파견자는 업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현지경험을 통해 실아있는 현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삼성은 파견사원에게 현지언어습득, 상관습과 문화체득, 여행 및 현지인과의 사고 등의 큰 줄기 외엔 어떤 업무도 요구하지 않으며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을 위해 철저한 자기의사와 계획에 따라 생활하도록 합니다. 삼성은 이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마저도 국제화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또 그 경험들을 소중히 합니다.

3년전부터 시작된 독신파견제를 통해 양성된 지역전문가들이 이미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를 통해 이미 많은 젊은 지역전문가가 양성되었으며 이들은 독신파견제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넓은 세상만큼이나 큰 뜻을 지닌 큰 뜻을 지닌 이들 —
이제 이들은 삼성의 인재이자 나라의 인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신파견제는 출신학과는 물론 맡고 있는 업무와도 관계없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